

4 안전한 학교와 교실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.

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괴롭힘, 따돌림, 두려움 없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아웃팅(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체성이 알려지는 일)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부모에게 알리는 것도 교사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. 학교에서 “누구 레즈레.” 라는 식으로 소문이 돌면 따돌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더더욱 성소수자 인권교육이 필요합니다.



5 성소수자 학생들이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교육자가 되어야 해요.

성소수자 청소년에게는 말 한마디조차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. 교사가 학교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고, 괴롭힘, 따돌림을 학생들 사이에서 조정하고, 성소수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과 인권감수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이는 차별 받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신뢰를 주고,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6 성소수자를 접할 수 있는

다양하고 다채로운 서적과 영상매체를 보유해요.



학생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할 것입니다. 도서관 사서(교사)들은 학생들이 성소수자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합니다. 서적과 영상매체가 부족하다면, 인터넷 검색을 함께하며 교육할 수 있습니다. 여러 성소수자 관련 단체 사이트를 방문해보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.

7 교육과정(커리큘럼)을 활용해

성소수자 인권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.

교사들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성 교육시간 뿐만 아니라, 역사, 음악, 사회, 윤리, 영어 등 다양한 교과목에서 영화 영상매체를 활용하거나 토론을 통해서 성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인권감수성 프로그램, 성적체성 이해를 위한 강연 프로그램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



***관련해서 궁금하게 있으시거나, 성소수자 인권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
lgbt.ivanschool@gmail.com 로 메일을 보내주세요.**



<

!> ,

(2010)

<http://www.lgbtpride.or.kr/youth/>

<

> ,

(2005)

<http://chingusa.net/school.pdf>